



-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구 멎 돌 린 신 앙

욥기 3장 11~19 김 원 치 목 사

내중 욥을 유의하여 보았으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확고함을 인정 하신것이다 이 하나님의 증언대로 욥은 부동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탄은 그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것은 그의 재물과 자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에게서 그자녀가 만행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는데 대풍이나서 집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악사을당 하였고 수천발이되는 소떼와 양떼를 스바사람이 와서 빼앗아 가고 종을쳐죽였다 그래서 순식 간에 욥은 10명배는 아들딸과 많은종과 가산가축을 다 잃고 빈몸이되었다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적신이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갈찌라 주시는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찌나다」 하고 주를 찬양 했다

다음에는 그에게 중기가 나서 기와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으 있을때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하였더니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아니하겠느냐하고 자기 부인을 나몰라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을 견지하였다

이욥을 불상이여기고 병문안은 친구들은 죄짓지아니하고야 이런 질병에 걸릴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재촉하였으나 절대로 그런죄 지은일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것은 욥은 죄 지었기때문에 벌로서 자기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신것이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되었다 욥은 너무나 괴롭이 심하여서 견딜수없는 심정에서 나온 말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하고 제일 행복된 출생과 양육과 사랑의 수고를 도리어 가장 불행한일로 맨드렸따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아니하니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하고 간곡한 소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두덤을 마련해 두시지아니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아니었다 사람이 극한재앙을 참고 견대는것도 시간의 장단의 정도지 영원무궁하게 참고 견대기는 어렵다 욥도 처음에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연사가 있었으나 그에게서 이러한 불경 불신의 말이나오리라 고는 생각조차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긴인생에는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가하면 지옥에 떨어질원망의 언행이 나올때 있다 예수와 함께 죽을려 가지고 순교를 결심한 도마는 예수의 십자가 사형 받을때에 벌써 그 믿음은 요동하여서 열두제자와 함께 있지않았다 부활의 보고를 받고도 그는 웃음거리로 알고 의심하였기에 부활의 주는 그에게 믿지않는 사람이 되지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만점의 신앙고백을한 일이나 죽는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팔으겠다고 맹세한 그 믿음의 용사 베드로가 재판소들에서 불제우는 여중에게 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한 그불신앙의 겁쟁이 된다고야 베드로 자신도 생각 못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측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의 언사나 행동이 우리에게는 종종있다 그러할때에 우리는 형식으로 나타난 신앙

고백과 그신앙의 행동의식 보담도 더 굳은 신앙이 이 형식으로나 사실도 보아서 인간적인 면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신앙 타락자의 길을 걷는것 같은 그때에 더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한다

욥이 하나님께 찬양한 그때를 우리는 욥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보면 어찌하여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는가고 하나님을 원망할때의 그 신앙 상태는 그의 신앙 생활에 구멍이 뚫린 이리라고 볼수 있겠다 그가 참신앙이 철두철미한 것이 였으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재앙의 행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찬양해야 만 그 신앙의 확고부동한 증명이 될 것이라고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어찌하여 내유방이 있어 나를 빨게 하는가한 그저주나 원망의 말은 실지는 그렇게 까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원망이나 저주의 말 조차할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믿음이 그 고통의 극도에 달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결한 이 믿음이 참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라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와 유대

과거60년의 선교역사는 모국장감 양교파가 합력으로 선교한 역사요 오늘의 재일한국교회는 그선교의 열매라고 할수 있는데 해방후 모국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지못하였다가 선교60주년을 맞이한후로 모국후원회가 조직되어 초교파의 진지한 유대를 가지게되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와 깊은 상통이 없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던차 모국후원회조직에 부회장으로 노진현목사님을 모시게되며 실행위원회부위원장에 김종근목사님을 모시게되어 재일한국교회와의 유대의 길이 열리자 금번 총회장 이환수목사님을 우리총회가 초청하였는데 4월4일 대관공향에서 반가히 맞이하게되었다 때 마치고 일본 누터교회신학교특별장사로 오신전총회장 정규오목사님도 우리를 찾아주시며 먼저오신 총무황규석목사님과의 긴밀한 연결과 아울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책임을 지신 목사님들의 깊은 이해를 얻어 재일60만동포구명사업에 협동책임으로서 선교대사업을 전개하게되었다 재일60만겨래의 실상과 동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게된 목사님들은 앞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를 전적으로 도아주신다는것과 구체적으로 총회신학교에 일 본서 신학생을 받아드려 인재양성에 협력해주시겠다는것과 예산을 세워 본국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해 주신다는것 60만구명에 필요한 KCC전설에 후원해 주실것 재일교포자녀 교육의 긴급성을 따라 교육사업에 극히 후원해 주시겠다는 등으로 오히려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를 도아 주신다기보다 재일60만구명에 협동책임으로 같이 일하자는 자세로 우리와의 유대를 굳게하게 된것이 다 전현총회장 두목사님은 한달쯤 일본에 재류하시면서 각방면에 더실질적인 시찰과 친히 동포와

(2면으로 계속)

제21회 관동 지방회 개최

9월23일 調布교회에서

1970년 9월23일 오전11시 30분 調布교회에서 부회장 맹철회목사의 사회하 회장 오윤태목사대신으로 전영복목사가 마태23장23절을 중심하여 우리교회가 60만동포와 함께 그속에서 봉사하고 책임으로 사는 교회가 되여야 한다는 뜻의 설교를 함으로 1971년도 제21회관동지방회를 개최 하였다 회장의 개회사와 출석25명으로 성회된개회선언이 있은후 내빈으로 전영복목사 박석규목사 小杉씨 김종출전도사를 소개환영 하였다 서기의 전회록낭독을 이어

각부활동 보고를 각부부장이 나와 보고 하였다 전도부장, 맹철회목사 교육부장, 이인하목사 청년부장, 이태우강도사 부녀부장 심은택전도사 후생부장, 윤판병집사 치리부장, 오윤태목사 회계, 권태악장로 2년제로 되어있는 금년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윤태목사 부회장, 맹철회목사 서기, 김계호목사 부서기, 강중구장로 회계, 권태악장로 부회계, 이영훈집사 각교회의 특수사정을 각 교회대표가 나와서 보고

한것이 四지방회중관동지방회의 특기합일이였는데 현의안중의 교회단위의 요청에 대한 사전설명도 되었고 각교회의 자세한 사정뿐만 아니고 개척전도의 상세한경과도 알게 된것이 지방회의 선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유익 하였다 여전도회관동지방연합회대표로 이금용집사 청년회관동지방연합회대표박 형의보고도 활동적 보고 였었다 현의안에 있어서 川崎교회와 보육원신설에 관한 조요청건 川崎교회장으로 1명 증원승인요청건 동경교회장으로 2명증원승인 청원건등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전도부장을 부회장겸임하지않고 황재정목사가 전임하게 되었다 독신장로와 여자장로장립에 관하여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여전도회10월 월례 회를 위 하 여

영혼의양식

무한한 감사생활

누가17:11~19, 신명기8:1120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길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생애는 오직 한결 같이 끝없는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실뿐만 아니라 그와 항상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며 고락을 같이 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으로 일관하시는 만유주,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이 크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낮은것 눈앞의 순간적인 것에 황홀하여 진정으로 값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한채 고달프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생활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지고 편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자기힘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줄 모르는 생활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그의 자녀들 즉 이웃형제자매들을 존중할수도 없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고함과 부진실로 이웃을 해치며 섭섭하게 할뿐입니다. 산에 오르던 어느 등산가가 산기슭의 한 주막집 주인에게 묻기를 「여기서 저 건너편 큰 성이 보이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겨울철에 나무잎이 다떨어진 후에는 그 성의 전경(全景)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녹음이 무성하면 잘 안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답니다.

여름철 풍성한 때는 그 성이 숨고 겨울의 황폐한 때에 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롭고 답답한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조금 쉬일만 하게 되면 곧 주님을 멀리 해 버리는 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됩니다. 여러면으로 우리의 생활이 좀 나아지고 번성할 때 하늘의 큰 집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집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고침을 받은 열사람중에 가장 업수이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사람 혼자만 도라와 감사할 때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 찾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찾으십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심정에서만이 구속받은 참된 성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잎이 무성하듯 능력으로나 소유로나 우리의 번영하는 시기에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보화를 더 잘 볼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사기도로써 힘을 다 하고 싶습니다. 늘 깨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중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안락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것은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한 표가 되며 현실적으로 부요한 가운데서도 우

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의 보화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자비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실과 함께 영원한 것을 바로 볼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항상 밝히소서 무한한 감사의 생활로써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뜻이 저희의 참천리 금수강산우에 이 온 땅우에 이루어지옵소서 저희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 멘》

제21회 관서지방회 개최

9월22일 平野교회에서

새시대의 첫해로 세계가 뜻있게 지낸 1970년 9월22일 平野교회에서 제21회관서지방회를 개최하다 오전11시 정각에 부회장김경찬목사 사회하 회장전영복목사의 「세로, 기로」의 제목으로 세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가로, 사람에게 대한 사회봉사를 KCC건설과 활동으로 몸서실천하여 60만동로속에 드러가는 교회가 되자는 간곡한 설교로서 개최하다 출석55명으로 개최를 선언하다 유학에서 귀국한 윤종은목사와 대리회원김호식목사 사회원이 김정휘 집사를 박수로 환영하고 내빈으로 서울 YMCA 맹기영부총무와 한국감리교박경룡목사 홍석연장로를 소개하고 본국교회와의 유대를 두텁게 하다 각부보고를 서기가 총괄로 보고하고 사무적인 보고로 만끝이지않고 각부활동리념과 활동방침을 지향하는 보고가 되었다.

1971년도 신입직원으로 다 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회장, 정인수목사 부회장 김원치목사 서기, 유석준장로 부서기, 이창우목사 회계, 김판옥장로 부회계 김만준장로 전도부장, 전

영복목사 교육부장, 배기환목사 청년부장, 윤종은목사 부녀부장, 안영준목사 후생부장, 이성기장로 시취부장, 김경찬목사 치리부장, 이종헌목사 치리부장, 정인수목사 헌의안으로 布施교회장로 1명장로 1명증원청원건 神戶교회장로 1명증원청원건 京都교회 3남골당전립협조청원건 헌법권증조래인쇄안 三宮전도소지장직속증원청원건 (사후 증인) 동안전들을 상회에 상정 혹은지방에서 허락하기로 결의 하였다 제26회 정기총회총대는 현목사장로 전원으로 정 하였다.

1971년도 일년간의 지방회활동비총액 973,516원의 예산을 세웠다.

KCC건설경과를 KCC 건설위원회서기가 보고하니 관서지방회에서 적극적 주동 활동으로 힘쓰자는 용기를 썼다.

내회장소로 西成교회를 정 하였다.

부회장 김원치목사의 사회로 회장정인수목사의 「깨진그릇의 새창조」라는 뜻 깊은 설교로 하오 5 시30분 폐회 하였다.

제20회 서남지방회 개최

9월15일 下関교회에서

세계가 긴장속에서 새시대를 맞이하는 듯한 1970년을 거의 반년지내고 9월 15일 1970년도제20회서남지방회를 11시정각에 下関교회에서 총대25명이 모여 부회장한재수목사의 사회하 회장홍영기목사 이 「선한청직」이라는 제목의 간곡한

설교로서 개최예배를 드림으로 엄숙리에 개최하였다 회장의 개회사가 있은후 회순채용 전회록낭독을 이어 다음과 같이 각부보고가 있었다 지난 1년동안에 台灣동경전선교사에게 자동차한대를 기증 연세대학신학원특별장좌를 위한 모금 한

국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교에 자동차-대기중에 관한 모금등 경제적활동과 김득삼목사의 캐나다유학을 환송한것 김덕성목사를 장로회 세계대회에 환송한것등 인사항내 특히 총회 KCC회관건설에 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여 KCC건설을 임시총회에서 가결시켜 KCC건설에 적극태세를 가춘것 교육부로서 주교교사양성을 강정자주사를 중심하여 약 5 개월간 각교회에서 강좌를 실시한것 교육대회를 개최하고 선교60주년기념주교근속교사표창과 주교생도대회등 다채한교육활동을 실시한것 전도부로서 佐世保전도소의 전도활동을 적극후원한것 徳山、飯塚등지의 개척전도 등에 힘쓴것 부녀부로서 부인수양회개회 청년부로서 청년수양회와 청년동산회를 실시하였다등의 활동보고로서 선교사명에 적극적 활동적인 서남지방의 교회현상을 보여 주었다.

二년제의 지방회임직원은 회장홍영기 부회장한재수 부서기최창화 회계최영근 부회계김기현 교육부장김형식 부녀부장한재수 후생부장이선조 치리부장홍영기등인배 유학중인김득삼목사를 대신하여 청년부장으로 대비수목사를 관서지방으로 전임예정인 김덕성목사 후임으로 전도부장에 최창화목사를 보선하였다.

宇部교회목사판수리비보조재요청안 下関교회장로 1명증원청원요청안 折尾교회장로 2명장로청원요청안 헌법42조총회구성에 관한 조항개정현의 안등을 가결상정하기로 하였다 1971년도지방회활동을 위해 총액444,000원의 예산을 세워 충실한 교회발전과 선교활동의 활발한전개를 기하였다회장의 사회하 부회장한재수목사의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로서 하오 5시반 한사람도 중간에 도라간회원도 없이 은혜에 넘친 제20회서남지방회의 막을 닫았다 폐회에배를 이어 선교10개년위원회총간사 전영복목사가 KCC건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경과와 의의와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앞으로 모금활동에 관한 교인전체의 협력을 간절히 호소하니 서남지방교인으로서 깊은 이해와 공동책임으로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나님앞에 서로나누었다.

解放・正義・開発

キリスト教アジア開発会議をめぐって

李 仁 夏

I. ヴァティカンと世界キリスト教協議会(WCC)との共働による、社会・開発・平和委員会(SODEPAX)と東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EACC)共催のキリスト教アジア開発会議が、去る7月14~22日東京聖心女子大学を会場に開催された。この会議の事務局長として筆者が、昨年6月以来今年の8月にかけて奉仕する機会が与えられた会議にはアジアの19ヶ国代表並びに全世界よりのコンサルタントとオブザーバーを加えて、約180名参加した。この会議の画期的な点は、アジアのカトリック・オーソドックス・プロテスタントが大規模な形で一堂に会し、アジア開発の諸問題に対してキリスト者としての共働の可能性を探求したことであったと言える。

II. この会議の成果については、諸教会に於てメッセージの中にそれが最も良く表明されていると思われるので、それを要約することにしよう。

まず、開発を定義して、「開発とは個人及び共同体が神によって与えられた人間としての全ての可能性を実現できるようにする解放の過程」と理解した。人間の生活が抑圧され、奴隷化され非人間化されている状態からの解放は、先進国と開発途上国とを問わない。次に、貧困の問題をアジアの緊急の課題として受けとめ、そのためにあらゆる資源を動員して、これに立ち向わせるため人間の姿勢に変革をもたらせ、経済の成長、分配の公正、自主態勢の確立を目指し努力して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言う点である。

こうした開発への関心は信仰から来るのである。貧しい虐げられた者の苦難にキリストの受難を見る。個人と諸国民が平和に生きること神の働きを見、科学技術・文化の営みが人類に仕えることの中に神の生きて働き給う姿を見る。更に開発への関心は共通の人間性を感謝するところから来る。それ故に他宗教やこの世の様々な運動と協力することを求める。この度の会議

は仏教・回教・ヒンズー教徒の列席をえて、解放・正義・開発のため共に戦うことへの連帯を確認した。

この会議で教会やキリスト者が開発の働きに参加するため、具体的方法が語られた。

教会は、開発への教育に参加することで諸国民の意識を高めることと、抑圧されている人々の側に立ち差別と搾取に立脚する社会経済政治機構の変革をもたらす方向に進むべきである。

この会議において教派を超えて与えられた一致から、今後のアジア地域での共働を促すものであったことを確認し一致への一層の深化を祈り又神への信頼を失わないならばこれらの諸々の課題が正しく遂行されて行くことを確信するものである。

III. この会議は、今後開発のために可能な共働機構の設立についてEACCとカトリックアジア司教会議に提案した。

EACCの継続会議はこれを承認し、11月マニラで開か

れる司教会議の結論を待つことにしている。

なお、各国でSODEPAXが組織されつつある。日本でこの会議に参加するための準備会は、SODEPAXを日本に発足させることを申し合わせた。

我われの教会もこれへの参加が求められるであろう。

この会議の組織を手伝いながら感じたことを述べて結論としよう。

会議の全焦点はアジアである。特に開発途上国が背後に問題とされている。しかし、メッセージが唱っているように、真の意味での開発は経済先進国でもその途上国においても、共通の課題であり、又アジアの貧しさが、日本のような国と深く関わっていると云わねばなるまい。

更にメッセージが述べているように、教会は真の開発を目指して国民・民族の意識を高める教育に関わり、抑圧された人びとの側に立って、差別と搾取を産み出す体制の変革を志向する方向に進むべきである。このことを「在日大韓基督教会」の置かれている使命の場ととらえ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った。

言葉で言うのはやさしいがこれを現実の場で、自から体を張って受けとめることの重さを感じる。

(開発会議事務局長)

〈福音〉世のための神の言

聖 教 会 牧 師 尹 宗 銀

さきの事はおぼられることなく、心に思い起すことはない。彼らは家を建て、それに住み、ぶどう畑を作って、その実を食べる、彼らが建てる所に、ほかの人は住まず、彼らが植えるものは、ほかの人が食べない。わが民の命は、木の命のようになり、わが選んだ者は、その手のわざをながく楽しむからである。彼らの勤労はむだでなく、その生むところの子らは災にからない。(イザヤ65:17、21~23a)これがシャロームである。シャロームは休戦でなく積極的な正義である預言者ミカはシャロームについて、ミカは彼らは皆そのぶどうの木の下に座し、そのいちじくの木の下にいる。(ミカ4:4)としるしている。ゼカリヤはミその日には、あなたが

たはめいめいその隣り人を招いて、ぶどうの木の下、いちじくの木の下に座すのである。(ミゼカリヤ3:10)と預言している。ミ暗やみの中に歩んでいた民は大なる光を見た。暗黒の地に住んでいた人々の上に光が照った。(イザヤ9:2)ひとりのみどりごがわれわれのために生れた、ひとりの男の子がわれわれに与えられた。まつりごととはその肩にあり、その名は、霊妙なる議士、大能の神、とこしえの父、シャロームの君となえられる。そのまつりごととシャロームとは、増し加わって限りなく……。(イザヤ9:6~7a)とある。

この主題は、たびたび、旧約聖書の中に現われる。主はまたモーセに言われた、アロンとその子たちに言いなさい

「あなたがたはイスラエルの人々を祝福してこのよう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願わくば主が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を守られるように、願わくば主がみ顔をもってあなたを照し、あなたを恵まれるように。願わくば主がみ顔をあなたに向け、あなたにシャロームを賜われるように」(民6:22~26)と。

シャロームは、旧約聖書にのみ限らないのである。新約聖書に於ても、シャロームの思想は、たからかにうたわれている。羊飼たちが夜、部宿しながら羊の群れの番をしている時に、主の御使が現れ、主の栄光が彼らをめぐり照したので、彼らは非常に恐れた……するとたちまち、おびたしい天の軍勢が現れ、御使と一緒に神をさんびして言った、「いと高きところでは、神に栄光があるように、地の上では、み心にかなる人々にシャロームがあるように。」(ルカ2:8、13~14)。シャロームの概念は新約聖書全体を通して現われている。イエスは、その弟子たちにいわれた。「わたしはシャロームをあなたがたに残して行く。わたしは、シャロームをあなたがたに与える。わたしが与えるシャロームは、世が与えるようなシャロームとは異なる」(ヨハネ14:27)パウロは、その手紙のはじめのあいさつに、必ずといっていい程「わたしたちの父なる神および、主イエス・キリストから、恵みとシャロームとが、あなたがたにあるように」とかいてある。イエスは、シャロームをきたらせる方であり、教会は、神のシャロームによって生き、それを世に証しする民である。しかしながら、教会が世のためにあるといわれるのを、よりよく理解するために、私たちは、シャロームのいくつかの要素を考えねばならない。

1. シャロームの第1の要素は、和解である。如何なる場合であっても、教会使命は、和解を証言する所にある。パウロは、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5:17~18において、「だれでもキリストにあるならば、その人は新しく造られた者である。古いものは過ぎ去った、見よ、すべてが新しくなったのである。しかし、すべてこれらの事は、神から出ている。神はキリストによって、わたしたちをご自分に和解させ、かつ和解の務を私たちに授けて下さった。としるしている。和解は神の

シャロームである。「神はキリストにおいて世をご自分に和解させ、わたしたちに和解の福音をゆだねられたのである。」また、和解は、エペソ人への手紙2:14~15にものべられている。「キリストはわたしたちのシャロームであって、二つのものを一つにし、敵意という隔ての中垣を取り除き、彼にあって、二つのものをひとりの新しい人に造りかえて、シャロームをきたらせ、十字架によって、二つのものを一つのからだとして神と和解させ、敵意を十字架にかけて滅ぼしてしまつたのである。」パウロは、隔ての中垣を、ナザレのイエスにあって、取り除かれたといっているが、その中垣とは一体なんであったのか。パウロにとっては、ユダヤ人と異邦人との間にあった差別感情であったであろう。その差別感情の中には、第一に宗教的な中垣があったようである。ユダヤ人は神の契約の民であったが、その外の異邦人たちは、約束されたいろいろの契約に縁がなかった。ここに宗教的民と非宗教的民との差異がある。第二に人種の差別があった。ユダヤ人非ユダヤ人との差が大きかった。第三に文化的な差別感情があった。ユダヤ人は神の律法の教訓と安息日を厳守したが異邦人はその反対であった。しかしナザレのイエスは、これらの障害物を取り除いて和解をたてたのである。イエスの生涯は徹頭徹尾、人間がたがい差別し合っている中垣を取り除くことであった。ナザレのイエスは、「自分を義人だと自任して他人を見下ろしているパリサイ人と、罪人扱いにされた取税人と間にある中垣を取り除いた。イエスは、シャロームのはじまりであり代表である。最後に、イエスの十字架上の罪状書きには、ヘブル、ローマ、ギリシャの国語で「ユダヤ人の王」とかかれてあった。これは、キリストが、政治、宗教、文化を支配し、これらをして神のシャロームを、うちたてる世界の王であるとの意味である。(つづく)





聖 書

空 洞 の 信 仰

ヨブ記 3:11~19 金元治 牧師(西成教会)

1. 「あなたは私の僕ヨブのように全く正しく神を恐れ、悪に遠ざかる者の世にないのを感じたか」と神はサタンに対してヨブの信仰をほめたたえたのである。それに対してサタンは、彼が豊かな生活と健康にめぐまれているからと言った。次にはサタンによってヨブの10人の子女と何千頭もある家畜を一瞬にして失ったけれども、その時にヨブは、主が与え主が取られたのだ、主のみ名はほむべきかなと主をほめたたえた(ヨブ1:21) 今度は自分の体が足の裏から頭の頂までいやな腫物で彼は悩んだ。そこで彼の妻が、神をのろって死になさいと言ったら、彼女を愚かな女であるといい、神から恵みを受けるから災いをも受けるべきであると言って神に対して罪を犯さない全く敬服するあつい信仰の持ち主であった(ヨブ2:8~10)

2. このヨブが今日読みました聖句に出てくる。自分の誕生をのろい、何故乳房があって自分を成長させたのか、と神をのろったのである。これが前記の全宇宙にヨブ程の篤信の人はないとほめられたヨブの口から出た言葉とは全く信じられない言葉である。あまりの苦しさに彼は死を望んでいるが、その死がやってこないと嘆くのである(ヨブ2:21) これは天国に早く行きたいというのではなく、こんなに苦しむよりは死んだほうがましだといったやりきれない逃避の道を探しているヨブの姿である。三人の友人はこのあわれな姿を見て、彼に罪を

犯さないのにそんな天罰があるはずがないから早く罪を悔い改めなさいと勧めている。(ヨブ4、5~9)

3. 新約でも主によって天国の鍵を与えられたあの磐石の信仰をもったペテロが(マタイ16:16~20) 主の法廷の前で主を如らないと誓うペテロであり(マタイ26:74) 主と共に死ぬ決心をしたトマス(ヨハネ11:16) が主より信じない者とならないで信ずる者になりなさいと言われた疑いのトマスになった(ヨハネ20:27) 信仰の勇者がもろく

も不信背教の道をやすやすと進んでいくように思われる。実はこの弱いように見え、不信仰のようにしている時が最も神に近くいるのである(第2コリ12:7) ヨブの一生に神をさんびしさんげの祈りを捧げたときよりも、神をのろい神にうらみ事を言っている時が最も神と真剣なやりとりができた。それこそ生命がけの信仰の闘いをしたのである。だから彼の信仰に空洞ができて主をのろったと思われるその時が最も忠実した信仰の時であった(ロマ7:24~25)

若 い 世 代 へ の 期 待

危 機 に つ い て

今日の危機は、社会の欺瞞であり政治の欺瞞であると言えよう。若い世代が声を大にして主唱するところの危機は古い体制の体質であった軍国主義がそのまま、安保に靖国に尾を引いていることであり資本主義がそのまま、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に結果づけられていることである。公害による残酷な奇病であるイタイ病よりはるかに残酷な難病奇病である「イタクナイイタクナイ病」と呼ぶべき自己保身の立身出世主義である。危機感のない宗教である。教憲に護られた誤訳信仰である。こうしたすべての欺瞞と偽善に満ちた現代と言うマンモスの現実が危機であり、すべて

に対して自己保身のほほかむりをしている智識人、権力者に危機と怒りを持つているのである。

若い世代の持つ純真と良心と正義観がこの時代に直面して危機感に追いやられたのである。在日韓国青年基督者はこれに加えて喉元をしめつけられる生存の危機感に苦しめられている。そして在日韓国人教会が共に真実に苦しんでくれることを共同責任の場に於て強く要請しているのである。教会がこの声を真実に聞き共に苦しみを担はなければ、マタイ伝23章のキリストの叱責を一層激しく受けることになり、在日60万同胞から捨て去られ、教会は只少数の

古い世代の自己保身のたまり場として細々と余命を保つ存在となり果てることになると言えよう。若い世代のその他真と良心と正義感を時代の宝として、これからの歴史を担う最も生命的な危機の聲に厳粛な敬意と期待を持つて已まない。それは決して一つの慨念的な叫びでなく不屈の思想であり一つの観念でなく生活的な行動であることを信じる古い時代にもその当時の若い世代が危機を叫び生活的に行動し闘った。然しその時代は恐るべき拷問の後に死が待っていた。今生き残っている老兵は、その当時若い世代として危機を感じ死を予期しつつ行動し生きて来た。その時代は危機でなく危険のるつぽの中にあった。未来将来への危機感でなく悪と不法との火中に身を焼かれていたのであった。帝国主義、軍国主義、全体主義の鎖につながれていた時代であった。危機感でなく決闘であった。それには少数の他真、良心、正義が余りにも小さく弱かった。決闘の敵が余りにも強敵であった。ようやくにして死の谷から拾われ、新しい時代を迎え、疲れ果てて今生き残っているのが老兵の姿である。只肉体は老すとも真理は永遠に老いないと言うことが、せめてもの慰めであらう。今の時代は闘うだけ闘える時代である。

R ニーバーの言を今一度噛みしめたい。

変えることが出来るものについてはそれを変えるだけの勇気を。

変えることが出来ないものについてはそれを受け入れるだけの冷静さを。

そして変えることが出来るものと変えることが出来ないものを識別するだけの知恵を

総会事務所移転

公 告

금번 日本キリスト教会館
新築에 따라 최초로부터
会馆建設에 参加해 온 在
日大韓基督教会總會는 事務
所를 아래의 住所에 11月
2日 移轉함을 公告 합니다
1970年 10月 25日
總會長 金 徳成
總 務 李 仁夏
新住所 東京都 新宿区 戸塚町
1丁目551番地(〒160)
日本キリスト教会館 5層
電話番号 (03)202-5391

和 解 (日本語版)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 発行 誌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権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一部20円で申込んで下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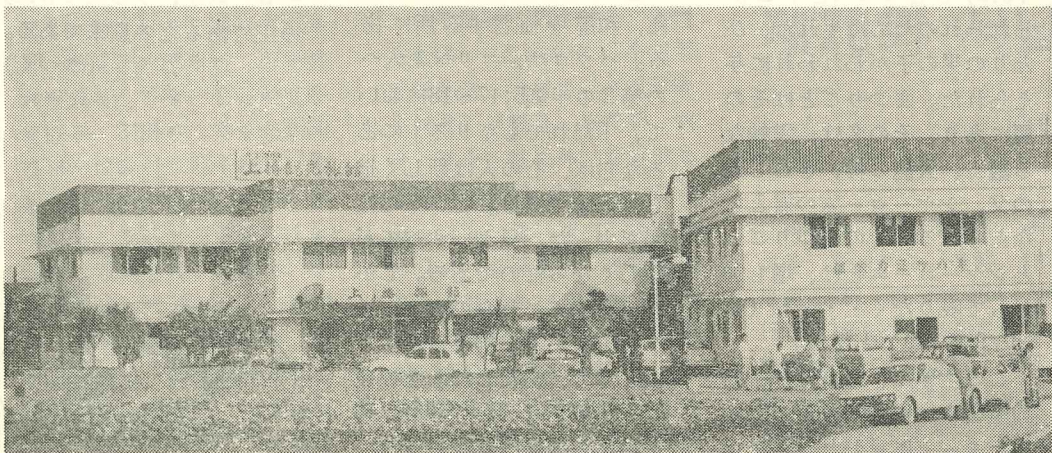
東大阪市南荘町9-18
枚 岡 教 会 内



印刷는

僑 文 社

7 1 6 - 5 0 4 6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大阪 (06) 341-2162